

트렌드를 리드할 결심, 일산 차안박피부와 10주년 이야기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은 것. 하나씩 나열하자면 끝이 없지만 내 피부주치의도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 노화의 가속도는 더해지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니 이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고객들이 ‘한결같다’고 한목소리로 반가운 인사말을 건넨다. 그 의미가 안부이면서 당부인 걸 잘 안다. 개원 이후 10년간 피부를 위한 퍼스트를 추구해 온 일산 차안박피부의 이야기다.

일산 차안박피부과 강지연 총괄 부장

신뢰의 역사, 그리고 브랜드 병원으로써의 긍지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일산 차안박피부과. 개원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강지연 총괄 부장은 지난 10년을 ‘신뢰의 역사’라고 전했다. 원장님의 직원에 대한 무한 신뢰, 신규 직원 간 동료애, 고객에 대한 감사함까지 이 모든 것을 ‘신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원장님을 비롯해 함께하는 직원들과 10주년을 맞이해 기쁩니다. 버팀목이 되어 준 장기근속 직원들은 물론 신입 직원들과의 시너지가 잘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개원이 인력난의 해법으로 강지연 총괄 부장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략으로 풀었다. 선택지가 다양한 신입 직원들이 피부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메디컬 스킨케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차안박피부과만의 차별화된 에듀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객의 필요를 직원들

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 1회 정기적으로 최근 병원의 인기 시술 및 사례들을 여과 없이 공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장님이 직접 시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도 진행해 주셨어요. 이러한 소통으로 직원들은 빠르게 수준높은 의료 지식을 쌓고 피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메디컬 스킨 케어의 선두주자인 차안박피부과 브랜드 안에서 더 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국내외 24개 지점이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 참석을 독려한 것인데 일산 차안박피부과를 넘어 각 지역에서 함께 하는 동료들의 존재감을 통해 브랜드 병원 임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장착하기 위해서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

간호부 소속으로 피부과 근무를 시작했지만 자꾸 눈길이 갔던 곳은 피부 관리였고, 강지연 총괄 부장은 관심을 넘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도전했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전문가인 메디컬 코디네이터로 병원 내 환자를 모든 접점에서 마주하기에 이르렀다. 개원가 전반의 업무를 하나씩 해내는 그녀의 독특한 이력을 눈여겨 보던 의료진의 권유로 상담 실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관심 분야에서 하나씩 확장해 나갔어요. 환자의 질문에 바로 답변할 수 있고, 만족감을 드리는 게 보람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 모든 과정이 현재 총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자산이 되었다는 것 역시 감사할 일입니다.” 일산 차앤박피부과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찾아보고, 다양한 소통을 하면서 고객의 필요에 한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지연 총괄 부장은 인터뷰 중 ‘신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직원 이야기로 긴 시간을 할애했다. 관리자로서의 그간의 고민과 지혜가 모두 어우러진 자부심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 지나고 보면 모두가 스승이었고,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였다는 것. 그 신뢰의 기반에서 나오는 존중감, 일산 차앤박피부과 내공의 근원이었다.

트렌드를 리드하는 일산 차앤박피부과

오랜만에 찾는 고객들로 반가움이 두배가 되는 순간, 기분 좋은 인사는 역시 ‘한결같다’는 말이다.

“일산 차앤박피부과에 방문하는 분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고여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하지 않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우리 병원의 강점을 살린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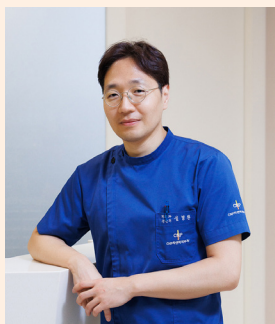
피부 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장비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임직원 모두 ‘피부 건강 우선주의’에 준하되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제안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트렌드를 리드하는 피부주치의 병원, 내 피부를 위한 아군이 생긴 듯한 든든함을 경험해 보기 바란다.



김명환 대표 원장 MINI INTERVIEW

“피부를 위한 퍼스트는 계속됩니다”



“대세는 안티에이징! 다양한 리프팅 메커니즘 속에서 이중 턱 개선 치료를 개원 이후 좌면우고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해 왔습니다. 무너진 얼굴선을 잡아주는 최종 종착지가 턱선이고,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피부과에서도 이중 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방향성은 맞았다고 봅니다.”

레이저 토닝 명의 유튜버로 파격적인 셀프 시술 영상을 선보이

고, 이중 턱 개선에 전심인 피부과 전문의. 일산 지역에 유독, 최 초라는 수식어를 붙인 다양한 시술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일산 지역의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써 피부를 위한 퍼스트를 실천해 왔다.

김명환 대표 원장은 고객들이 붙여준 ‘한결같은’ 피부과 전문의 병원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피부주치의로서 말이다. 최고의 고객을 대하는 일산 차앤박피부과의 자세이기도 하다.